



“우리는 조양·한울기공 현장 지키는 노동히어로”

조양한울분회 파업 51일, 승리 결의대회 열어 ... “노조파괴 빌런 처치 위해 ‘금속노조 어셈블’ ”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조양·한울기공 기경도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고, 대구지역회 조양한울분회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다시 결의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6월 21일 오후 대구 달성군 공장 앞에서 ‘조양한울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대구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손기백 조양한울분회장은 투쟁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개새끼가 되었다” 라면서 “조양한울 기경도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확대간부들에게 했던 말이다” 라고 폭로했다.

손기백 분회장은 “기경도 대표이사는 ‘빌런’ 이다” 라며 “인격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죄책감도 없다. 경찰·노동부 조사받을 때조차 벌금 돈 내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라고 분노했다.

손기백 분회장은 “우리 분회 조합원들은 조양한울 현장을 지키는 ‘노동히어로’ 다. 노조파괴 악당을 처치하기 위해서 히어로에게 막강한 힘이 필요하다” 라면서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



라고 호소했다. 손기백 분회장은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대사 “어셈블(assemble)” 을 힘차게 외치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노조 대구지부 조양한울분회가 전면파업 투쟁에 들어간 지 6월 21일로 51일 차에 접어들었다. 사측은 2023년 임금 교섭 과정에서 분회장을 부당해고하고 금속노조 탈퇴 회유·협박 등을 저질렀다. 급기야 5월 3일 공격적 직장폐쇄로 분회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내몰았다.

조양한울분회는 2022년 8월 금속노조 가입 이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 말살, 인격 말살 등에 맞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박용선 노조 대구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사측의 합의 반복 이후 11일 만에 재개한 교섭은 사측의 성의 없는 태도로 허무하게 끝났다” 라고 분노했다.

박용선 지부장은 “조양한울 조합

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생존권을 걸었다” 라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돈으로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기경도 대표이사를 이길 수밖에 없다” 라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동조합이 거듭 경고했음에도 기경도는 태도를 바꿀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라며 “사장이 노동자를 ‘돈벌이 수단’, ‘노예’ 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사장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작 직장폐쇄로 회사를 망치고 있는 사람은 기경도 대표이사다” 라면서 “자신이 몸담은 회사를 망하길 바라는 노동자는 어디에도 없다” 라고 호통쳤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적극 지지하며 함께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 조양한울분회는 기경도 대표이사 구속수사,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요구하며 노동청·검찰 1인시위, 주요 고객사 선전전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보]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 ... “윤석열 퇴진 넘어 노동자 주인 세상 쟁취”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분신으로 항거한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장례를 사망 51일 만에 치렀다.

양회동 열사의 장례는 서울대학병원 영안실 발인을 시작으로 서대문 경찰청 앞 노제, 광화문 네거리 영결식, 마석 모란공원 안장 순으로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열사 장례식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등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는 약속과 결의를 다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결식에서 “양회동 동지의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이다”라며 “양회동이 옳고, 윤석열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자. 윤석열 정권 끝장에서 멈추지 말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을 벌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